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0, pp. 161-173,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0.16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두수[1], 백진아[2*]
[1]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go-Resilience, Biculture-Acceptance, bullying and Parenting attitude on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Doosoo Jeong[1], Jina Paik[2*]
[1]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 1,347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 및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립변수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중단의도를 가지는 것을 예방하고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업중단의도,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부모양육태도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go-resilience, biculture acceptance, bullying, and parenting attitude on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o do this, the subjects(n=1,347) extracted from the 5th year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were analyzed b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found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ong ego-resilience, biculture acceptance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decreased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Second, multicultural adolescent's bullying had no effect on it. Thir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creased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ention of school dropout, playing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the change of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n the based of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various the programs to prevent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ention of school dropout which can be practiced in the field service.

Key Words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Ego-Resilience, Biculture Acceptance, Bullying, Parenting Attitude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July 6, 2020
Revised October 5,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경제성장의 주요 토대인 동시에 계층간 신분상승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벌성취가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잡으면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력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이해력의 부족과 이중문화 수용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형성은 1990년대 이전은 주로 이주노동자와 일부 종교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 후반부터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터민의 증가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문화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0.1%를 차지하였고, 2015년에는 1.4%를 차지함으로써 10년 동안 14배 증가하였다[1]. 2019년 현재 다문화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2.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었다.

2017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전체 다문화학생 10만 9387명 중 1,278명으로 1.17%를 차지하며, 초등학생이 0.99%, 중학생 1.47%, 고등학생 2.11%으로 나타나[3]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다문화 학생은 조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학업중단의 결과는 국가적 측면에서 미래의 노동력 감소로 생산력 손실과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안정적인 직업구조의 파괴, 범죄 발생률 증가 등[4]의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적 측면에서 저학력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비행이나 범죄 및 집단따돌림에 노출될 가능성이 짙으며,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의 미비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5].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 다문화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학업중단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실제 결정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생각, 즉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진로에 대한 정체성 미확립, 집단따돌림[5],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6], 낮은 자아존중감[7,8]과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7-9], 부모 간의 불화[5]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학습능력 미달과 낮은 학업 성취도 및 학교 부적응, 다문화수용태도의 부족, 낮은 언어이해력 등도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하여 개인, 가족, 문화, 학업,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영향의 보호요인과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요인인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에 대한 통제를 강화 혹은 완화시키는 능력을 의미[10]하는 것으로,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자아탄력성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배타적 특성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보통의 적응기제[11]로서 청소년의 각 발달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훨씬 어렵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기 쉽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향상시켜야 할 중요한 특성이다[12]. 특히 탈북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탈북이라는 역경을[6,13] 이겨낸 힘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긍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중의 하나로 자아탄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나라의 서로 다른 이중문화를 수용하지 못

해 문화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이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중문화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사회의 주류문화와 어머니의 소수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상이한 문화와 습속, 가치관 및 언어의 차이로 인해 다름과 낯설음을 경험하는 것이다[14].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완벽한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설명하는 용광로(melting pot) 모델이나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서로 대립과 경쟁한다는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 수용의 관점을 표방한다. 즉, 다문화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언어와 문화적인 갈등을 내재하고 있지만, 이중문화를 수용함으써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대학진학 이상의 교육에 대한 포부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 뿐 아니라 실제 학업중단이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하여 친구관계의 부재나 학교폭력의 문제와 연결시킨 연구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물리적·사회적인 생활규모의 제한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상과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15]. 이에 따라 진학과 학습에 있어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다양한 양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의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 친구나 선생님과의 사회관계, 학교생활부적응 등의 이유[17]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에 따른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관계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안, 우울 성향이 있으며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5,18] 특히, 친구요인인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 학업중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이 Kim et al.[5]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집단따돌림은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통해 공격적인 행동과 괴롭힘의 피해가 고의적인 의도하에 반복되는 현상[19]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왕따나 이지매 혹은 또래괴롭힘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20].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집단이 가장 중요한 준거이자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를 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이는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라북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5]에서도 폭력과 친구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이 학업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ong[21]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언어상의 문제, 새로운 환경에서의 문화부적응 및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학생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또래로부터 당하는 집단따돌림 피해에 노출될수록 학업에 흥미를 잃고 대인관계에 있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중단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꼽을 수 있다. 가족은 청소년이 처음 접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유형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22,23]. 부모가 민주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24], 부정적으로 양육할 때 보다 학업을 중단하는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양육태로를 보일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보다 학업중단이 더 많이 일어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5].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힘들게 하는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업중단 행동이나 의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26-30].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분석한 Nam의 연구[8]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는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방임, 학대, 과잉간섭 등)는 학업중단의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도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이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개인요인이나 환경요인에 주목하였고, 연구대상도 대부분 대학생과 일반 청소년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진학률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진로계획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잃게 만들고 직업선택과 사회적 기술의 향상 등 청소년기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과업 수행의 미비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선택에 있어 폭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미래사회의 빈곤으로까지 연결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요인인 자아탄력성과 문화요인인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부모요인인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친구요인인 집단따돌림으로 설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요인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다문화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요인, 부모요인, 친구요인, 문화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로 자아탄력성, 문화요인은 이중문화수용태도, 친구요인은 집단따돌림, 부모요인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를 학업중단의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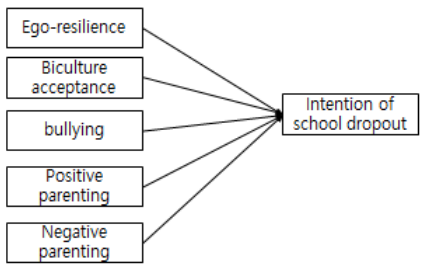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MAPS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2016) 초등학생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소년패널조사 학생은 전국 2,537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4,452명(2011년 기준) 중 1,635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조사대상자는 5차년도 자료로 조사시점에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 1,347명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표본분포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가 1,238명으로 대다수(92%)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국제결혼가정자녀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2.3.1.1 개인요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ok & Kremen[31]이 제작하고 Yoo & Shim[32]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다문화패널 연구원들이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질문문항은 '내 친구에게 너그러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줌',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음'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총합으로 자아탄력성이라는 잠재변인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 변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계수는 .9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1.2 문화요인: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는 Noo & Hong[33]이 개발한 척도에서 발췌하여 한국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 관련 항목을 수정하여 다문화패널에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34]. 문항구성은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가 0.4보다 낮은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를 제외한 8문항의 총합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라는 잠재변인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 변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계수는 .751로 나타났다.

2.3.1.3 친구요인: 집단따돌림 경험

집단따돌림 경험 척도는 집단괴롭힘 경험 중 피해경험에 관한 내용을 Lee & Kim[35]이 개발한 문항을 다문화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한 번도 없었다' 1점, '한 달에 1-2번 있었다' 2점, '한 주에 1-2번 있었다' 3점, '거의 매일 있었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 피해 변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계수는 .906으로 나타났다.

2.3.1.4 부모요인: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Heo[36]가 개발한 척도에서 부모님의 평소 양육과 관련된 항목을 수정한 것으로 다문화패널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세부적으로 감독과 방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 감독을 긍정적 양육태도, 방임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긍정적인 부분을 묻는 감독(3개)문항과 방임(7개)문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긍정적 양육태도는 감독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부모님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를 포함한 3개 문항이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양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Chronbach's α계수는 .861로 나타났다.

한편, 방임을 의미하는 설문문항은 '부모임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의 6번과 7번 문항은 역변화 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양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Chronbach's α계수는 .815로 나타났다.

2.3.2 종속변수: 학업중단의도

학업중단의도 척도는 생활 및 태도, 친구 및 선후배와 관련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생활 및 태도와 관련하여 Lee[37]가 개발한 척도에 수록된 문항을 수정해 다문화패널 연구원들이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친구 및 선후배와 관련된 항목으로 이루어진 문항의 응답범주가 2점 척도로 생활 및 태도의 응답범주와 달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 및 태도를 묻는 지표로 구성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지표구성은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술, 담배, 머리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업중단의도의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의도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계수는 .768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했다. 첫째, 다문화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며,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적 경향과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신뢰도 산출을 위해 문항간 내적 일관성인 신뢰도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각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종속변수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값은 회귀대체법을 사용하고 이상치를 검증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661명(49.1%), 여학생이 686명(50.9%)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의 출신국은 중국이 342명(25.4%), 필리핀 344명(25.5%), 일본 458명(34.0%), 기타 203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인 경우가 606명(45.0%)을 차지하고, '만족하는 편이다' 505명(37.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45명(10.8%), '매우 만족한다' 91명(6.8%)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학교'인 경우가 1,088명(80.8%)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이하' 195명(6.8%), '대학원' 64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347)

variable	section	frequency	%
gender	male	661	49.1
	female	686	50.9
mother's nation	China	342	25.4
	Philippine	344	25.5
	Japan	458	34.0
	other	203	15.1
grade satisfaction	very well be	91	6.8
	well the	505	37.5
	do not satisfaction	606	45.0
	do not satisfaction at all	145	10.8
expected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195	14.5
	university	1,088	80.8
	graduate school	64	4.8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이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은 3.06(sd=.46), 학업중단의도의 평균값은 1.84(sd=.56),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값은 2.83(sd=.43)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의 평균값은 1.04(sd=.22)로 낮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3.22(sd=.58),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1.75(sd=.51)로 나타났다.

Table 2. Chare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in.	Max.	Mean	S.D.
ego-resilience	1.43	4.00	3.06	.46
intention of school dropout	1.00	3.83	1.84	.56
biculture acceptance	1.38	4.00	2.83	.43
bullying	1.00	4.00	1.04	.22
positive parenting	1.00	4.00	3.22	.58
negative parenting	1.00	3.71	1.75	.51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주요 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이중문화수용태도(r=.46, p<.01) 및 긍정적 양육태도(r=.36,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학업중단의도 r=-.14(p<.01), 집단따돌림 피해(r=-.14,

p<.01) 및 부정적 양육태도(r=-.22, p<.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의도는 집단따돌림 피해(r=.07, p<.01) 및 부정적 양육태도(r=.31,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r=-.17, p<.01) 및 긍정적 양육태도(r=-.29, p<.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r=.30, p<.01)를 나타내고,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r=-.23, p<.01)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따돌림피해 경험은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인 상관관계(-.06, p<.01),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07, p<.01)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상관계수는 r=-0.39(p<.01)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①	1					
②	-.14**	1				
③	.46**	-.17**	1			
④	-.14**	.07**	-.02	1		
⑤	.36**	-.29**	.30**	-.06*	1	
⑥	-.22**	.31**	-.23**	.07**	-.39**	1

주) **p<.01, ① ego-resilience ② intention of school dropout ③ biculture acceptance ④ bullying ⑤ positive parenting ⑥ negative parenting

3.4.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Model 1에서는 일반적 특성인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 어머니의 출신국가,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Model 2에서는 자아탄력성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투입하였고 Model 4에서는 집단따돌림을 투입하였으며 Model 5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를 투입하여 살펴보았다.(Table 4)

Model 1에서 모 출신국가는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희망교육수준은 학업중단의도에 정적인 영향(ß=.15, t=5.6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영향(ß=-.169, t=-6.4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교육수준이 높고 성적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중국, 일본, 필리핀, 기타로 분류하여 더미 처리해 분석했지만 세 개 집단의 더미변수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아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Model 1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25.3%(R^2=.253)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Model 2에서 Model 1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자아탄력성 변수를 투입하자, 희망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약간 낮아지고(ß=.14, t=5.43, p<.001), 학업성적만족도(ß=-.15, t=-5.37, p<.001)가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ß=-.10, t=-3.69, p<.001) 역시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Model 2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력은 27.1%(R^2=.271)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를 통제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 변수를 투입하자, 전 단계에서 영향이 있었던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은 여전히 학업중단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수용태도(ß=-.11, t=-3.60, p<.001)는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 즉,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탄력성 변수는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ß=-.05, t=-1.66, p>.05). Model 3에서 독립변수는 28.7%(R^2=.287)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Table 4. The Effects of Ego-resilence, Biculture Acceptance, Bullying and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모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	ß	t	B	ß	t	B	ß	t	B	ß	t	B	ß	t
Gender	-.02	-.02	-.79	-.02	-.02	-.63	-.03	-.03	-1.02	-.03	-.03	-1.08	-.04	-.04	-1.51
mother's nation 1	-.03	-.03	-.72	-.04	-.03	-.89	-.05	-.04	-1.06	-.05	-.04	-1.04	-.03	-.02	-.61
mother's nation 2	.03	.02	.65	.02	.02	.49	.02	.02	.46	.02	.02	.44	.02	.02	.51
mother's nation 3	-.12	-.10	-2.56 *	-.13	-.11	-2.82 **	-.11	-.10	-2.51 *	-.11	-.10	-2.53 *	-.08	-.06	-1.73
grade satisfaction	-.12	-.17	-6.39 ***	-.11	-.15	-5.37 ***	-.10	-.14	-5.27 ***	-.10	-.14	-5.21 ***	-.09	-.12	-4.52 ***
expected education level	.24	.15	5.66 ***	.23	.14	5.43 ***	.22	.14	5.28 ***	.21	.14	5.14 ***	.15	.10	3.77 ***
ego-resilience				-.12	-.10	-3.69 ***	-.06	-.05	-1.66	-.05	-.04	-1.43	.04	.03	1.00
biculture acceptance							-.14	-.11	-3.60 ***	-.14	-.11	-3.68 ***	-.07	-.06	-1.94
bullying										.11	.04	1.66	.09	.04	1.42
positive parenting													-.17	-.18	-6.17 ***
negative parenting													.22	.20	7.02 ***
F	15.242***			15.137***			14.982***			13.642***			23.694***		
R^2	.253			.271			.287			.290			.404		
adjR^2	.064			.073			.082			.084			.163		
Durbin-watson	1.806														

주) *p<.01, **p<.01, ***p<.001, mother's nation 1(China=1, Philippine/Japan/other=0), mother's nation 2(Philippine=1, China/Japan/other=0), mother's nation 3(Japan=1, Philippine/China/other=0),

Model 4에서는 Model 3을 통제하고 집단따돌림 변수를 투입하자,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여전히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1, t=-3.68, p<.001).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 투입된 집단따돌림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ß=.04, t=1.66, p>.05). Model 4에서 독립변수는 29.0%(R^2=.290)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Model 5에서는 Model 4의 변수를 통제하고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집단따돌림 피해가 모두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ß=-.18, t=-6.17, p<.001)는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ß=.20, t=7.02, p<.001)는 학업중단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할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 5에서 독립변수는 40.4%(R^2=.404)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Model 2보다 Model 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6% 증가하여 28.7%로 나타났고, F값은 14.982 (p<.001)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Model 3보다 Model 4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0.3% 증가하여 29.0%로 나타났고, F값은 13.642(p<.001)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Model 5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Model 4보다 훨씬 증가하여(11.4%) 40.4%로 나타났고 F값은 23.694(p<.001)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른 변수들보다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자아탄력성은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하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1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 희망교육수준이 낮고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관한 분석에서 학업성적이 낮을 경우 학업을 중단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Jang[3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모델 2에서 개인요인인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업중단의도간의 관계를 살펴 본 Lee[39]의 분석에서 자아탄력성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자아탄력성과 성취감, 삶의 만족도 등이 탈북대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40]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모델 2에서 성적만족도와 희망교육수준은 모델 1보다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의 이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Woo[4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이중문화적응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적응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이 빠르다는 사실을 주장한 Shim의 분석[42]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집단따돌림 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업중단의도를 분석한 Lee[43]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의 피해 청소년들이 모두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지는 않으며, 이들 중 일부만 학교에 적응 곤란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4]에서도 친구스트레스(따돌림 내용 포함)는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중단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45,46]에서는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 및 소외감을 당한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이탈한다는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피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을 나쁘게 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참여를 낮춤으로써 학교적응이나 학업지속을 어렵게 하는 경로를 보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해 본다면,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를 받는 경우 피해청소년들은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거나 공평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의 발생현장은 학교이지만, 피해청소년들이 그 원인을 직접 학교의 문제로 돌리는 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로 인해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건강이 나빠지면서 학교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7,48].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 피해 자체가 직접적으로 학교만족도나 학교참여를 저해한다기 보다는 집단따돌림 피해를 통해 나빠진 심리적 건강이 학교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결과가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데 반해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정적 양육태도이며, 다음으로 긍정적 양육태도로 나타나 부모양육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의 선행연구[26]에서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변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모양육태도임을 밝히고 있다. Nam[8]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학업중단의도를 낮추고 부정적으로 양육할수록 학업중단의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학업중단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5,7,9,41]에서도 부모의 긍정

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양육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반 담임교사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지원센터 교사들은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담임교사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학교사회복지사나 위클레스 상담사에게 의뢰하여 심리 정서적 부분의 상담서비스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받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문화를 수용해 학업중단의도를 낮추고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이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부모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친구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과 부모가 일일교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본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설명해 주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문화장벽을 타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가정의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국의 언어로 한국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설명해 주고, 부모교육 시에도 자기 나라 언어로 교육을 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가정을 서로 연결시켜 멘토/멘티 역할을 부여해 주면 모방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며, 자녀와의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해와 학업지속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그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전체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논의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미 구성된 2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개별 문제에 대한 지표 문항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점에서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게 검증된 복수의 문항척도를 개발하여 심도있는 분석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검토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설명한 개인적이고 문화적, 가정 요인 외에 광범위한 환경체계나 정책과제 등에 의한 영향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에 더 의미있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각 대상집단에 적합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이를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REFERENCES

[1] http://kostat.go.kr

[2] https://www.bing.com/search

[3] http://www.moe.go.kr

[4] H. J. Kim & M. Yang. (2017).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23-34. DOI: 10.14400/JDC.2017.15.1.23

[5] O. Y. Kim, Y. S. Lee & Y. M. Woon. (2004). An Analysis into Perception an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ropout of Study of Juveniles in Jeollabuk-Do.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725-741. DOI:10.14400/JDC.2017.15.1.23

[6] I. S. Kim & S. E. Y. (2015). A Study on Academic Withdrawal Factors and Support Strategies for North Korean College Students: Search fo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Multiculture & Peace, 9(3), 122-142. DOI: 10.22446/MNPISK.2015.9.3.006

[7] R. R. Kim & J. K. Lee. (2016). A Study on the Danger and Protection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Intention to Quit School: Focusing on M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53-81.

[8] Y. O. Nam. (2016).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Welfare, 18(4),* 251-274.

[9] J. J. Han & J. Y. Hong.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3)*, 493-504. DOI: 10.3928/02793695-20180503-06

[10] J. Block &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DOI: 10.1037/0022-3514.70.2.349

[11] A. S. Masten. (2001). Ordinary Magic-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DOI: 10.1037/0003-066x.56.3.227

[12] W. J. Kim, J. A. Jung, T. E. Shim & S. Y. Lee (2017).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Cesilience by Language Ability and Bicultural Acceptance Using a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8(4),* 167-194. DOI: 10.14816/sky.2017.28.4.167

[13] M. E. P. Seligman & M.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14] J. A. Han, (2009). (The)Progressive 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15] Y. S. Chae, H. J. Kim, H. T. Chung, K. S. Lee & M. W. No. (2015). A Study on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Regulation Forms - Focused on Students in a Small Rural Middle School Students -. *Korean Book Research, 27(3),* 37-52.

[16] Y. S. Goo. (2016). Educational Support for 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with Reference to Basic Academic Competency of Elementary/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361-374. DOI: 10.5392/JKCA.2016.16.05.361

[17] Ministry of Gender Family. (2016). http://www.mogef.go.kr/

[18] J. H. Cha. (199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roup Therapy Program Focused on Psychodrama for Delinquen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 D. Olweus.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DOI: abs/10.1111/j.1469-7610.1994.tb01229.x

[20] O. S. Cho & J. A. Paik. (2014). The Effects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chool Bullying Victim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8(2),* 233-244.

[21] H. J. Jeong. (2011). A Study on the Children's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Schools in Multicultural Families of Rural Areas-A Comparison with the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22] S. H. Lee. (2012).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Scale' Parents with School-Age Childre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3] H. J. Kim & S. H. Hong.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1)*, 413-429.

DOI: 10.20972/kjee.26.1.201503.413

[24] J. G. Kim & K. H. Lee. (2008). Relationships between Combinational Pattern of Parenting Styl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3),* 1183-1200.

[25] M. Janosz, M. Le Blanc, B. Boulerice & R. E. Tremblay. (2000). Predicting Different Types of School Dropouts: A Typologica Approach with L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171-190.*

[26] B. Y. Khu, H. S. Shin & J. M. Yoo. (2002). A Study on the School Dropout Model Through the Data Min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2),* 35-57.

[27] K. Y. Kim. (2009).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Self-defense Mechanism and Parents' Nurturing Behavior Perceived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8] S. H. Oh. (2010). Abstracts : The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Youth Runaway -Focus on the Runaway Impulse and Runaway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301-324.

[29] H. J. Lee, S. Y. Kim & S. M. Cheon. (2016).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Relationship Variable to Youth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2),* 329-348.

[30] R. M. Ryan, J. D. Stiller & J. H. Lync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 -249.

[31] J. Block &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32] S. K. Yoo & H. W. Sh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33] C. L. Noo & J. J. Hong.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59.

[3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https://www.nypi.re.kr

[35] H. K. Lee & H. W. Kim. (2001).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Predicting Elementary Students' School Bullying Behaviors : On the Bases of Their Gender and Grad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1),* 117-138.

[36] M. Y. Huh.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37] J. Y. Lee, S. Y. Kang, H. J. Kim, Y. Y. Lee & E. J. Yang. (201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erceived by School Dropou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8(2),* 228-241.

[38] B. K. Jang. (2016).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Maladaptation on Intention of Leaving School among Adolescents-Focused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39] H. S. Lee. (2013).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on Intention of High School Students Dropout-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Seoul.

[40] M. E. Seligman & M.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y, 55(1),* 5-14.

[41] A. S. Woo. (2020). The Effects of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to Multicultural Students on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nd Depress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Gunpo.

[42] M. Y. Shim. (2013).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aptation among Children from Mu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Mediating of Bi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5,* 233-254.

[43] J. H. Lee. (2013). Analysis of the Peer Bullying Victimization Process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4] J. K. Lee. (2018).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Stress, School Mal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Latent Dropout Intent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4(3),* 1-24.

[45] S. Y. Lee & S. I. Nam. (199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Adaptation Policy for

Middle-School Students. *Korea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1-233.

[46] J. Staff & D. A. Kreager. (2008). Too Cool for School?: Violence, Peer Status and High School Dropout. *Social Forces, 87*, 445-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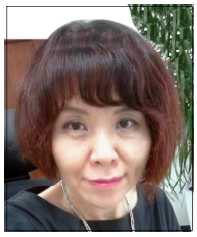
[47] H. W. Kim (201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n Relationships among Peer Rejection, Peer Victimization, Psychological Health, Schoo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173-198.

[48] S. Graham, A. D. Bellmore & J. Mize. (2006).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Their Co-occurrence in Middle School: Pathways to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63-378.

정 두 수(Doosoo Jeong) [정회원]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3월 : ~ 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청소년, 노인, 노동
· E-Mail : ds8485@hanmail.net

백 진 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